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최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25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6월 14일

발 의 자 : 최 선, 강동길, 김광수,
김생환, 김용석, 김창원,
김춘례, 봉양순, 송아량,
송재혁, 안광석, 오한아,
이경선, 이상훈, 이은주,
채유미, 최정순 의원(17
명)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서울 동북권(강북·성북·노원·도봉) 지역은 주거 인구 규모와 비교해 교통인프라가 부족하고, 도심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표적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거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 교통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꾸준히 요구되어왔음.
- 현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동북권의 도심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는 강북횡단선 확장 등이 추진될 예정에 있어,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북권의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향후 동북권 지역의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장되고, 교통 결절점 중심 환승체계를 구축하며, 대중교통 서비스 용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다.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0.11.16.)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10년간(2021~2030) 7조2천6백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건설과 완성형 도시철도망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대표적 교통취약지역인 동북권역은 대규모 주거 인구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도시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강남·북간 지역 격차의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다행이도 동북권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주요 개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대규모 재정사업을 통해 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승인을 위해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각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펼친 결과,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최종 승인을 이끌어내는 의정 성과를 보였다.

향후에도 서울시의회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도시철도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동북권의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 인프라 확장, 교통 결절점 중심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동북권 지하철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21. .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